

지역 매아리

고창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국화축제 및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12개소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와 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희 의원은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김영호 의원은 한빛원전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병순 부안부군수

수생정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

전병순 부안 부군수는 최근 부안을 활성화 위해 추진중인 수생정원 조성사업의 6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부안을 선은리, 신운리 일원 신운천 생태하천(썸기소로) 주변에 조성되는 수생정원 관련사업은 ▲수생정원 조성사업 ▲신운천 수질정화시설사업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산립조경 조성사업 ▲부안읍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마당 조성사업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오는 202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생정원관련 사업현장을 점검한 전병순 부군수는 "생태하천과 연계된 정원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 미세먼지 등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사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관리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 만들기

부안군, 치매극복 선도학교 서림고등학교 지정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서림고등학교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협약을 맺었다.

서림고등학교는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극복 선도학교 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치매극복 선도학교로써 봉사하게 된다.

치매극복 선도학교는 치매파트너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서림고등학교 치매파트너는,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치매예방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게 된다.

부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과 더불어 부안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치매파트너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부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안군을 만들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신나는 친환경 벼 수확 체험

대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체험

고창군이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2018년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를 실시했다.

대산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 쌀사랑농단지(대표 강부덕)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여성재향군인회, 답십리 2동 새마을 부녀회 등 100여명의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 벼 수확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한결RPC를 방문하여 수확한 친환경 벼가 쌀로 도정되는 과정을 견학했다.

또한, 고창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하여 벼 이외 고창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에 대해 홍보 및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비자들이 서울로 돌아갈 때는 우리군의 친환경농산



고창군이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2018년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를 실시했다.

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쌀사랑농단지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창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안심 먹거리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값 받는 농업실현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페스티벌

정읍시에서는 오는 27일에서 28일까지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제8회 공동체페스티벌을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개최한다.

공동체 페스티벌은 정읍시 시민참여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정읍시가 후원하고 정읍시공동체협의회(회장 유연필)가 주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동체 페스티벌은 매회 시민과 관객 등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읍시민의 색깔을 담은 도심축제로 자리를 잡아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

이 되는 공동체 육성 모범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동체 페스티벌에서는 지역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맘껏 뽐내고 공동체 고유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이곳에서 지역 공동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8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동체 페스티벌은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역상인회와 함께 부스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즉흥적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아나바다 부스를 운영하여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행사 내용으로는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머그컵 만들기, 구절초 염색, 전통타본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인형극 공연, 라인 댄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건강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건강한 지역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과, 마을농산물 판매, 공동체 작품 전시회 등 다채로운 체험과 즐길거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유연필 정읍시공동체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는 정읍시민참여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와 상품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활기찬 정읍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예고 없는 재난, 평소에 대비하세요”

정읍시, 오늘 민방위의 날 맞아

지진·화재 대피훈련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제408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2시에 20분간 재난대피 특성과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역과 계절, 장소와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화재 등 복합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으로 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상황을 설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교, 대학교, 직장민방위대, 관공서, 기업체 등 164개 학교 및 직장에서 실시하고, 1만 7,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시범훈련으로는 북면3공단이 위치한 KCFT(주)에서 공장시설 지진과 대형화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지진경보 발령 없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각급 학교와 직장이 주관하여 오후 2시를 기해 자체적으로 훈련 안내방송과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여 지진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훈련에는 정읍시여성민방위대, 정읍시해병전우회, 정읍시모범전자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응급처치요령 교육, 훈련장 질서유지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훈련 시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소화한다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보호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안전을 확보한 후 밖으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하므로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대피 후 부상자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하고 심정지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등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유진섭 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평소 가정과 직장에 소화기와 완강기, 비상용전등, 소방방치 등 기본적인 재난안전용품 비치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과 대피요령, 인명구조 활동 등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직장과 훈련기관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훈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5일 정부혁신 워크숍... 활력증진 기대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안군 일원에서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협력적 의사소통 방안', '데이터기반의 혁신행정', '협업'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평적 소통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정부혁신'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득하여 혁신성과에 대비하며, 직원들에게 활력증진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능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첫날에는 원광대학교 원도연 교수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의의와 지방정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이어 사람순권선텐 이경화 강사의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적 의사소통 실천 스킬',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최광웅 원장의 '데이터기반의 혁신행정'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며, 이차리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한국능률협회 최창수 교수의 '팀워크와 상호작용의 길'을 주제로 직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팀워크와 소통능력 향상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협업 중심의 정읍시로 거듭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혁신이 공민자 중심적인 혁신에 머무르면 혁신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고 변화도 제한적이다"며 "수요자인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s listed include: 1. 750ml 2ea, 2ea/16%, 2. 750ml 2ea, 1ea, 오프너/12%, 3. 750ml 1ea/12%, 4. 500ml 2ea, 2ea/12%, 5. 375ml 5ea/13%, 6. 500ml 2ea/12%, 복분자1ea/13%, 1ea, 오프너, 7. 375ml 2ea/13%. Contact: TEL: 063-584-9900 www.gangsanwine.com